



기획시리즈



김 사 일 /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새로운 조경수(ⅡXⅢ)

## — 모감주나무 —



▲ 모감주나무의 개화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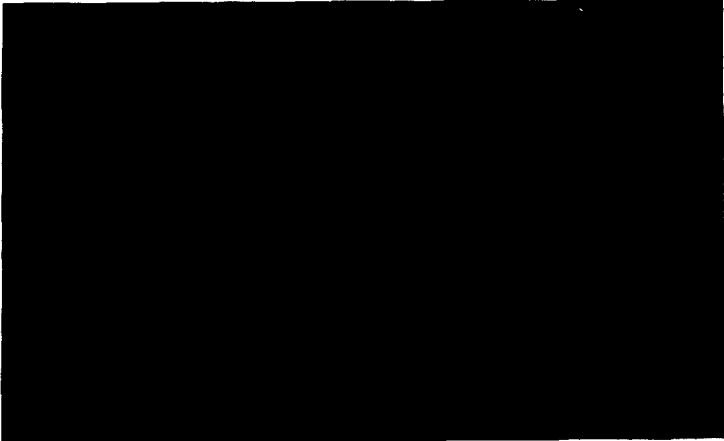
▲ 모감주나무의 열매

### ○ 종류와 생육특성

모감주나무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무환자나무와 모감주나무의 2수종밖에 없으며 무환자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생육하고 있고, 모감주나무는 황해도와 강원도 이남지역에 생육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안미도를 중심으로한 서해안에 많이 자생하고 있다.



◀ 모감주나무의 화서와 꽃



▲ 모감주나무의 집단자생지의 개화전경

무환자나무는 내조성(耐潮性), 내건성(耐乾性)은 강하지만 내한성(耐寒性)과 내음성(耐陰性)이 약하여 추운지방에서는 월동이 어렵고 수림하(樹林下)의 음지에서는 생장이 불량하며 토심이 깊고 토양이 비옥한 산록이나 계곡 부에서 잘 자란다. 모감주나무는 무환자나무보다 내한성이 강하고 척박한 임지에서도 잘 자란다.

그리고 모감주나무는 세계적으로 희귀수종으로 그 자생지는 대

표 1. 수목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무환자나무	Sapindus mukorossi GAERTNER	ムクロジ
모감주나무	Koelreuteria paniculata LAXM	モクゲンジ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 종 명	일 과 가 지	꽃 과 열 매	분포지역	생육임지
무환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 20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교목.</li> <li>· 잎은 호생(互生)하며 소엽이 4~6쌍으로 구성된 기수 1회 이상복엽.</li> <li>· 소엽은 장타원상피침형, 점첨두, 예저.</li> <li>· 소엽길이 7~14cm 폭 3~4.5cm.</li> <li>· 소엽양면에 털이 없고 뒷면에 주름살이 많으며 가장자리에 거치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5월에 담황색으로 뿜.</li> <li>· 화서는 원추화서며 길이 20~30cm로 짧은털이 있음.</li> <li>· 꽃은 단성화(單性花)이며 자웅동주(雌雄同株).</li> <li>· 열매는 10월에 황갈색으로 익으며 열매속에 한개의 흑색종자가 들어 있음.</li> <li>· 열매는 등글고 지름이 2cm정도 되는 핵과(核果)임.</li> </ul>	남부지방 제주도	토심이 깊은 비옥지
모감주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 8~9m정도 자라는 관목성 낙엽활엽수 소교목.</li> <li>· 잎은 호생하며 소엽이 3~7쌍으로 구성된 기수 1회 이상복엽.</li> <li>· 소엽은 난형, 첨두, 예저.</li> <li>· 소엽의 길이 3~10cm, 폭 3~5cm.</li> <li>· 소엽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거치가 있고 잎의 하부에 결각(缺刻)이 있으며 뒷면 엽맥 상에 털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6~7월에 황색으로 피고 꽃의 중심부는 적색임.</li> <li>· 화서는 원추화서로 길이 25~30cm.</li> <li>· 열매는 10월에 익고 파리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4~5cm정도 되는 삭과(朔果).</li> <li>· 한개의 열매속에 등글고 윤채가 있는 흑색종자가 3개 들어 있음.</li> </ul>	황해도, 강원도 이남	토심이 깊고 비옥한 임간나지 표고 100m 이하

부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 ○ 조경소재로서의 활용 가치

꽃을 거의 볼 수 없는 계절인 6~7월에 노란색 꽃이 나무전체를 뒤덮고 있는 단목도 아름답지만 넓은면적의 많은 나무에 꽃이 피어 바람에 나무끼고 있는 경관은 마치 푸른바다에 황금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것같은 장관을 만끽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수종은 도로의 가로수, 도심지의 공간녹화수, 각종 정원의 정원수 등으로 단목식재를 하여도 좋지만 철도변, 도시내를 흐르고 있는 하천의 제방과 하천부지, 공원, 수목원, 자연휴양림, 자연학습림 등에 넓은 면적의 집단식재를 권장해 볼만한 수종이다.

### ○ 번식 및 양묘방법

이들 수종은 단간성(單幹性)이며 뿌리에서 맹아(萌芽)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주(分株)에 의한 번식은 할 수 없고 삽목에 의한 번식에 있어서는 봄에 휴면지(休眠枝)의 삽목은 활착율이 낮아서 어렵고 7~8월에 녹지(綠枝)삽목으로 번식이 가능하나 높은 활착율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종자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환자나무는 가을(10월경)에 황갈색으로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과육(果肉)



▲무환자나무의 화서와 꽃



▲무환자나무의 화서



▲무환자나무의 열매

을 제거한 후에 모감주나무는 열매에서 종자를 탈종한 후에 종자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마른모래와 섞어서 저장을 하던가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하였다가 춘기 파종적기에 파내서 파종하면 된다. 노천매장시 배수상태가 불량하면 종자가 부패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곳에 노천매장을 하여야 한다. 파종은 적당한 간격으로 조파(條播)를 하여 일반활엽수 파종상의 관리요령에 의하여 관리하면 된다.